

“농산물 갈아엎는 정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

전남도의회 의원들, 임시회 도정질문서 비판

블루 이코노미 환경 고려·친일 잔재 실태 파악 시급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23일 열린 전남도 의회 ‘제 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로 인한 환경 훼손 및 민원 해소대책,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의 조속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실태 파악도 요구했다.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 언제까지 할텐가”=김문수(신안 1·민주) 의원은 피랍홀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해 갈아엎는 정책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풍년이 들면 값이 떨어지고 흉년 농사가 반값지 않다가 이웃 시·군 농사가 잘못되면 은근히 바라는 현실, 옷 지못할 우리 농어촌 실정”이라며 “한 때 농·수·축산물이 폭등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핵심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올해초부터 농·수산물에 폭락해 갈아엎는다는 농촌

소식이 들려왔다”며 안심하고 농사만 지을 정책 좀 마련해줄 수 없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근 5년 간 전남도 관광·복지 예산의 경우 1000억~5000억원까지 증액 편성된 반면, 농수산 예산은 338억 늘는데 그쳤다”면서 농·축·어업 예산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다음달 양파·마늘·대파·가을배추·가을 무 등 5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주요농산물 생산 가격안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전남도의 협조를 구했다.

◇“블루이코노미, 주민 수용성·환경 고려해야”=사순문(장흥 1·민주)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허가 건수가 급증하는 데 따른 농촌 경관 파괴, 전문 투기세력에 의한 개발이익 유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MW 이하 소규모 재생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을 시행하면서 발전허가 건수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게 전남도와 사 의원 분석이다. 전남지역 발전허가건수는 895건(2015년)→1762건(2016년)→7365건(2017년)→9995건(2018년) 등으로 급증했다. 사 의원은 “전남도가 에너지 신산업 메카를 꿈꾸는 ‘블루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감안, 주민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남지역 친일 잔재 실태조사해야”=신민호(순천 6·민주)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남지역 곳곳의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 중 도내에 생존하는 369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아픔을 치유하고 대상에서 누락된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 전남 전 지역에 걸쳐 일제 잔재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실태를 파악, 정비하고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빛그린국가산단 조속 추진 촉구, 남도

의병 역사공원 공모 출속 비판도=김경자(비례·민주) 의원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고 관련,함평구역 2단계(222만4000㎡) 구간의 조속한 착공과 함평지역 일대에 우선투자 시행지구로 지정될 10만㎡ 규모의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최근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남도의회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선국(목포 3·민주) 의원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공모가 중단된 것과 관련, 전남도가 의욕만 앞세워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애초 지난 8월 28·29일 역사공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했다가 뒤늦게 사업 성격과 역사공원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다며 잠정 연기,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48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로 240억원을 확보하겠다는데도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닷 올렸다

국내의 AI 전문가 20명 구성
추진위 공식 출범…첫 회의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융합집적단지들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시켜 광주를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한편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대표도시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용섭 시장과 실리온밸리 발명왕이자 슈퍼컴퓨터 세계적 권위자인 김문수(시 인공지능 기술고문) 박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 이정환 전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을 위촉했다.

또 조환익 시 경제고문이자 전 한전 사장,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문승일 서울대 교수, 박정일 한양대 교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광주의 비전 및 전략수립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실리온밸리의 연구소와 함께 김문수 박사의 특허를 활용한 인공지능 반도체 SoC(System On Chip) 개발과 지역의 기업지원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이정환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비전 및 전략의 기획방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와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법·제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위원들은 “첨단3지구에 조성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사업과는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확보 및 창업지원,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섭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선도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우뚝세우고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농업박람회 입장권 있으면

전남 관광지 무료·할인 혜택

2019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을 갖고 전남 관광지를 무료나 50% 할인 받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다음달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행사를 앞두고 시·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람회 입장권을 소지한 여행객은 남도의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완도수목원, 아이들의 해양수산과학 이해도를 높여줄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등 전남도를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40개 관광지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

발전전략이다.

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강호축은 경부축 중심의 국토 개발로 소외됐던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초광역 국가

/연합뉴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산업 메카 될 것”

공청회서 분석…생산유발 290억, 5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비롯, 나주 에너지밸리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면 연구개발단지 육성을 통한 기술이전·창업 활성화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용희 광주전남

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공청회’를 통해 특구 조성으로 R·D·I 기능이 활성화되면 2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5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359명의 취업유발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비교적 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 핵심기관과 기업을 모아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혁신도시 일대 2.18㎢를 특구로 지정해 국내 에너지산업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기술사업화 핵심지구·0.41㎢), 한전공대 및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등이 들어

서는 클러스터(기술이전 확산지구·0.80㎢), 스마트 혁신 일반산단(기술생태계 순환지구·0.97㎢)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강소특구는 특구 내 연구개발기관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150건), 기술창업(100건), 연구소기업(50건), 첨단기술기업(10건) 등의 기술 사업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이를 통해 500억원의 기술 사업화 매출을 올리고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부터 中 장시성서 ‘전남도 주간행사’ 연다

양 지자체 교류 확대키로

전남도가 2020년부터 중국 장시성(江西省)에서 ‘전라남도 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 지자체 간 교류를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전남을 방문한 이연홍(易煉紅) 장시성장과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지사·성장회의 이후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회담에서 관광·농업·의학·문화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전라도의 해양관광과 장시성의 풍경명승구(알차배기 풍경)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전세기 운항 재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기술 교류, 통합의료 발전을 위한 두 지역 대학·의료기관 교류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를 통한 분야별 인재 양성 등이 거론됐다.

2020년에는 대표단과 함께 장시성을 방문해 ‘전라남도 주간행사’를 열기로 협의했다. ‘전라남도-장시성 주간행사’는 문화교류, 예술단 공연, 특산품 전시, 관광홍보 등을 내용으로 2년마다 상대방 지역에서 열린다.

김 지사는 “내년 장시성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주간행사는 전남의 모든 자원을 중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한 장시성 대표단 일행은 24일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 구례 자연드림파크,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 고려청자 제작 과정, 친환경 농업의 6차산업화, 열린 생산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남도와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를 시작으로 2012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목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